안철수 "숲, 패배 겁나 탄핵 운운"…김기현 "安, 왜곡·곡해"

국민의힘, 김기현 "현재-미래 권력 부딪히면 탄핵 우려" 발언 후폭풍 두 당권 후보, 재반박 이어가며 공방…장제원 "당 내분 정권에 부담"

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 보를 겨냥해 "대권 주자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"고 언급한 뒤, 이들의 공방이 이어 지고 있다.

이는 김 후보가 지난 11일 안 후보를 향해 '차기 대선주자 당 대표 불가론'을 강조하며 "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질 수 있다. 차마 입 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"고 발언하면서

이를 두고 안 후보가 전날 "아무리 패배가 겁난다 고 여당 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을 운 운하는 게 말이 되나"라고 비판했고, 이를 김 후보 가 재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.

김 후보는 13일 BBS 라디오에서 "당 대표가 되 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우리 당내에 흠집을 내는 모습은 자제해 줬으면 좋

겠다"며 안 후보를 또다시 직격했다.

김 후보는 "현재 권력, 미래 권력 그것은 과거의 우리 경험이다. 현재 권력과 새로 나타난 미래 권력 이 당내에서 충돌했을 때 불협화음이 생겼고, 그것 때문에 결국 당내 분란이 생겨서 쪼개지고 정말 생 각하기도 싫었던 아픈 탄핵이라는 과거가 있었다" 며 "그런 과거를 우리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얘기한 것"이라고 설명했다. 이어 "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 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곡해했다"며 "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는 건 자제해 달라"고 촉구했다.

친윤(친윤석열)계 핵심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

기자들과 만나 "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나"라며 "당정 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 지, 당정이 분리돼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 조한 발언 같다"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.

그러나 안 후보 캠프의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 은 SBS 라디오에서 김 후보 발언에 대해 "당을 심 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"라며 "민주당 후보처럼 말 을 한 것"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.

김 선대위원장은 "김 후보가 너무나 생각이 없거 나, 여러 가지 바닥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이나

천하람 바람, 이런 다른 후보의 바람에 놀란 것 같 다"며 "결국은 굉장히 조바심, 급했다"고 지적했다.

천하람 후보도 오전 MBC 라디오에서 "결국은 나를 안 찍으면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 다고 하는, 어떤 얕은 수의 협박을 당원들에게 하는 것"이라며 "당원 수준을 얕잡아 보는 처사"라고 김 후보를 재차 비난했다.

이어 "사실은 조급함의 표시인데 말이 안 맞는 다"며 "내가 알기로는 김 후보도 대선 욕심이 있다. 울산시장 선거할 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그랬 다"라고도 주장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·연합뉴스



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·김기현·안철수·황교안 당대표 후보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13일 제주도 제주시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'힘내라! 대한 민국 - 제3차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'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제주 간 국힘 지도부 "4·3 희생자 명예회복 최선"

김기현·안철수 등 당권 후보 평화공원 참배

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제주를 찾아 "4.3(사 건)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 회복 등 최선을 다하겠다"고 강조했다.

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주 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회의에서 "제주 4·3은 아직도 치유가 필요한 역사적인 상 처"라고 약속했다.

정 위원장은 "윤석열 정부는 대통합 정부이자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정부"라며 "제주도가 대한 민국의 화해와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"고 했다.

정 위원장은 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제주 관광 의 피해가 컸다며 "제주 경제 활성화에 무엇이 필 요한지, 정부와 집권여당이 더욱 꼼꼼히 챙기겠

회의에 앞서 비대위는 제주 봉개동의 4·3 평화

공원을 참배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. 국민의 힘 지도부가 공식 일정으로 평화공원을 참배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이날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리는 3.8 전 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참석차 제주를 찾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도 평화공원을 찾았다.

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평화공원을 참배 한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방명록에 "겪으셔야 했 던 아픔과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좋은 나 라 만들겠습니다. 편히 쉬소서"라고 적었다.

김 후보는 참배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"이 하겠습니다"라고 썼다. 땅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 도록 국민의힘 후보 김기현, 다시 한번 결의를 다 진다"며 "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,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"고 다

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제주 지역 청년 20여 명 과 함께 평화공원을 참배했다. 별도의 방명록은

안 후보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"제주도에 올 때마다 4·3 공원을 찾았었다"며 "과거의 아픔을 우 리가 함께 되새기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이곳을 찾았다"고 전했다.

천하람 당 대표 후보와 허은아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,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 친이준석계 후보들도 4·3 평화공원을 방문했다.

천 후보는 방명록에 "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 제주 동백의 아픔과 항상 함께하도록

천 후보는 참배 후 "희생자와 유족이 무엇을 필 요로 하는지 끝까지 챙기겠다"고 밝혔다.

천하람・허은아・김용태・이기인 후보는 참배 종료 후 4·3 사건 유족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·연합뉴스

김기현 '탄핵 발언' 여진

대통령실 "대통령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"

대통령실은 13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 한 김기현 후보의 '탄핵' 발언 논란과 관련 "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 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런 방법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다"고 밝혔다.

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'김 후보의 탄핵 발언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하다' 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.

그동안 대통령실이 이 사안과 관련, "관여할 일 이 아니다"라며 언급 자체를 피하던 것과 다소 온 도 차가 있는 반응으로 해석된다.

이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 '당정 분리'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출하는 데 대해서도 "당무는 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"이라고 선을 그었다.

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이 1심에서 '아들 50억원 퇴직금'과 관련해 뇌물 수수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말을 아꼈다.

그는 "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, 재판 중인 상 황에 대해 대통령실,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을 것 같다"고 말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IIIIII 여의도 브리핑

"민주화운동 열사,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"

윤영덕 의원, 법 제정 촉구

더불어민주당 윤영덕(동남갑) 국회의원은 13 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 함께 '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' 제정을 촉구했다.

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또 는 행방불명,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. 동법은 제15대 국회부 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 발의되었지만, 제대 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.

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9 년 12월 기준,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 이 136명, 부상 당한 사람이 693명, 총 829명에

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"이분들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있게 한 국가유공자로서 입법절



차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로 서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생각한다"고 강조했다.

국가보훈처가 2018년 실

시한 정책연구용역에 의하 면 국민의 다수(69.2% 찬 성)가 민주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, 민주화

운동으로 인한 사망·상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(92.5%)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.

윤 의원은 "법의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또는 부상으로 확인된 분들과 그 유가족 800 여 명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고, 국민적 공감 마저 확보된 민주유공자법은 21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"고 밝혔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

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·열독률 1위

상가매매 (상무지구.유흥적합) (임대가능)

- ▶ 중심 상업지구
- ▶ 유흥가능 (전용 100평)
- ▶ 시세 10억
- ▶ 급매 7억 (융4억)

(보4천,월수익 400만)

경매교육[^{특수 전문반}]

* 특수 전문반 모집 (10명)

- 1) 기초반 (기초부터 실전) 2) 중급반 (실전부터 ~)
- 3) 특수반 (유치권,법지,지분)
- 4) 투자반 (투자가능한분)

▶ 경매 물건 추천 ◀

북구 두암동 (상가주택) ▶ 감정가 3억9천 → 최저가 2억7천

광산구 하남동 (근린상가) ▶ 감정가 62억 → 최저가 35억

동구 금남로 (주택) ▶ 감정가 2억5천만 → 최저가 1억1천

광산구 박호동 (주택) ▶ 감정가 4억4천 → 최저가 3억

광산구 하남동 (공장) ▶ 감정가 36억 → 최저가 16억

장성 동화면 (과수원) ▶ 감정가 8억2천 → 최저가 4억6천

서구 풍암동 (근린주택) ▶ 감정가 6억5천 →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(주택) ▶ 감정가 2억1천 → 최저가 2억1천

010-2614-9801

010-6670-9800